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지원

신청기간 매년 1~2월

문의처 080-751-0700

## 파견신청 안내

신청기간 매년 8~12월

문의처 080-751-0701

### · 권역별 전화번호

수도 강원권	충청 전라권	경상 제주권
서울 지역 054-851-0822~3	대전·광주·세종 지역 054-851-0827	대구·경북 지역 054-851-0830,2
인천·강원 지역 054-851-0824	충북·충남 지역 054-851-0828	부산·울산 지역 054-851-0831
경기 지역 054-851-0825~6	전북·전남 지역 054-851-0829	경남·제주 지역 054-851-0840

\* 해당 지역 번호로 문의하시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무상 지원해 드립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 [www.storymama.kr](http://www.storymama.kr)

f kstudystorymama @ kstorymama

무릎교육을 되살립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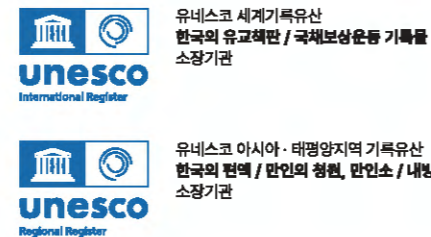


박정옥(11기, 부산) 이야기할머니와  
혜화어린이집 아이들



# 기록유산에 담겨있는 조상의 지혜를 오늘을 인도하는 삶의 자양분으로 가꾸어 나갑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고 연구 활용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학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국내 최대 국학자료 소장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은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들을 바탕으로 유교문화박물관, 한문교육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전통인문 정신 체험연수프로그램, 근대기록문화 조사수집사업 사업 등을 운영함으로써 조상의 숨결이 미래를 이끄는 지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무릎교육을 되살립니다

어릴 적 할머니의 무릎은 이야기 타래였습니다. 팔죽할머니와 호랑이, 토끼의 재판,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이야기가 끝없이 쏟아지던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우리 아이들은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웠습니다.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옛날에”를 속삭이던 살가운 전통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통해 되살아납니다. 이야기할머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주관합니다.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가 걸어온 길

- 2009** ● **사업 기반 조성**  
유아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줌으로써 미래세대의 인성과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 기획  
*1기 대구·경북 30명 선발 / 28명 수료(2010년 현장활동 시작)*
- 2013** ● **사업의 전국화**
  -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선발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전국대회 개최
- 2017** ● **광역자치단체 참여와 사업의 해외 전파**
  -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
  - 호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스토리텔러 양성과정 지원)
  - 싱가포르 국가박물관(이야기할머니사업 벤치마킹)
  - \* 2015년 : 연한제 도입(1~6기 10년, 7기~현재 5년)*
- 2019** ● **첫 졸업생 배출**
  - 1기 13명
  - 활동 연장 제도 도입(평가를 통해 3년 활동 연장)
- 2020 ~ 2022** ● **위기와 극복**
  - 코로나19로 인해 양성 과정 운영 및 현장 활동 위축
  -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 및 현장 활동 운영
- 2023** ● **새로운 10년을 위한 도약을 위한 준비**
  - 사업 외연 확장  
K-Story 해외보급, 이야기 배틀 TV 런칭, 이야기 융복합극 순회공연 등
- 2024** ● **'이야기할머니사업본부'로의 승격 및 사업 확대**
  - 사업 확대 '전통 나눔 할아버지' 신규사업 추진  
문화소외계층(요양원, 지역아동센터, 특수학교 등), 늘봄학교(초등1~2학년)



“

꿈나무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나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기쁜 행복 배달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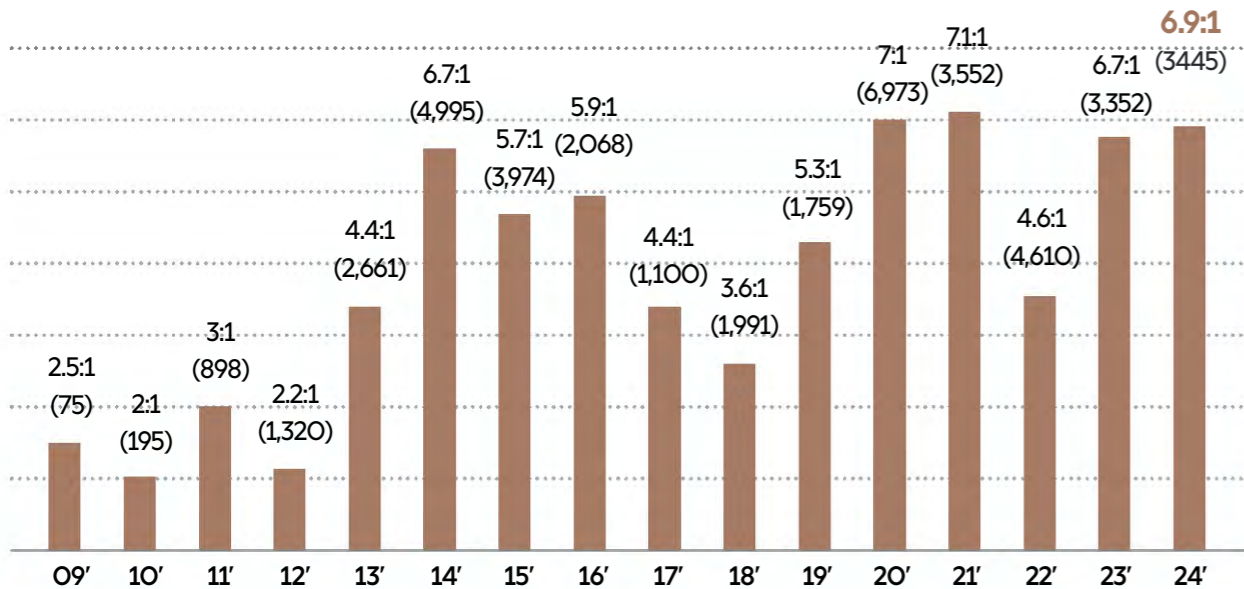
‘이야기할머니 활동수기 공모전’ 우수작 『행복 배달부(7기 최영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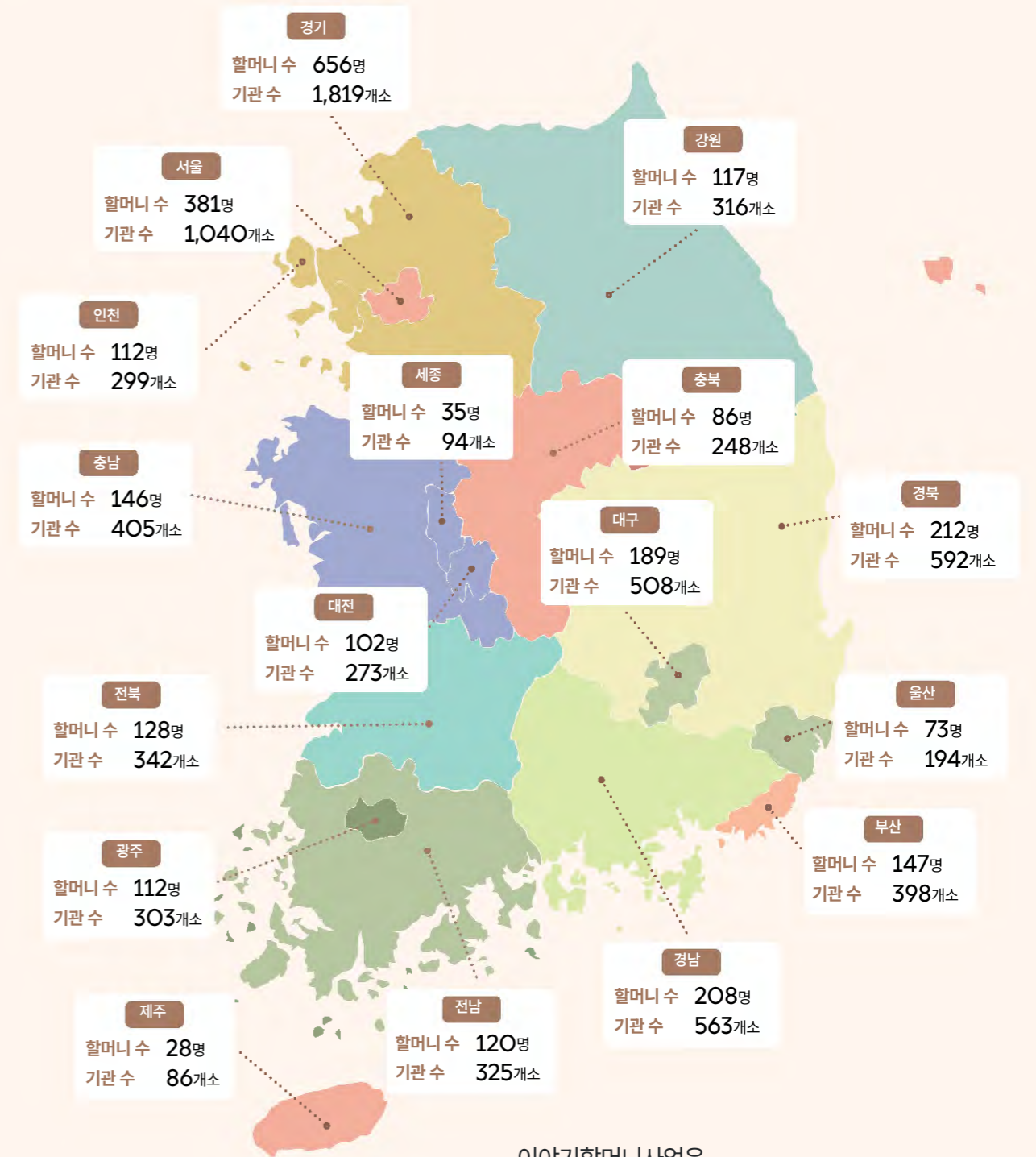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 1. 엄격한 선발과정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야기할머니가 유아교육기관을 찾아 옛이야기를 들려줍니다.
- 2.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선현들의 삶과 지혜와 교훈이 담긴 옛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유아들의 인성을 기르고 세대 간 문화적 연대감을 높입니다.
- 3. 미래세대 주인이 될 유아들은 할머니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고유의 정서를 익히고 전통문화를 이어갑니다.
- 4. 여성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지원 경쟁률 (지원자 수)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활동 현황



이야기할머니사업은  
전국의 **2,852명의 이야기할머니**와  
**7,805개의 기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 한명의 이야기할머니가 탄생하기까지

이야기할머니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1년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탄생됩니다.  
이야기할머니가 되는 과정을 따라가 볼까요?



1월~2월  
모집 및 선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가 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4월~5월  
신규교육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박 3일간 합숙교육으로 진행되며, 이야기할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6월~11월  
월례교육

권역별로 월 1회, 이야기활동에 필요한 구연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합니다.



11월  
현장실습교육

선배 할머니의 생생한 활동 이야기를 들어다보고  
현장 활동 시 발생하는 여러 사례 및 대처 방안을 들어봅니다.

내년 1월  
사전교육

이야기할머니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교육입니다.  
현장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 아이들을 만나러 갈 준비 완료!

## 이야기할머니 신청 방법

### 자격요건

지원 당시 기준으로 만 56세(당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74세(당해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어르신  
'25년(1969. 1. 1.~1951. 12. 31. 출생)

### 지원 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기간 매년 1~2월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

\* 자세한 신청기간은 홈페이지-정보마당-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 이야기할머니 양성교육 과정

### 신규교육

[이야기할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자원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 교육]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박 3일 합숙교육



### 월례교육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와 이야기 구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각 권역별 교육장에서 월 1회 1일 (6개월) 교육



### 수료(이야기할머니의 날)

양성교육 이수 후 출석률과 이야기 구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장활동 자격 부여

# 이야기할머니는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활동

- 1.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간 34주 동안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늘봄, 돌봄)에서 활동
- 2. 1일 최대 3학급 담당(학급 당 20분 활동) \* 늘봄교실 40분
- 3. 연간활동계획에 따라 선정된 이야기를 유아들에게 구연
- 4. 활동비 1회 40,000원

### 1 전국 유아교육기관

**활동 대상** 만3~5세(5~7세) \* 가정어린이집 제외  
**활동 횟수** 주 1회 (2025년 3월~12월, 34주)  
**활동 시간** 20분

\* 아름다운이야기할머니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무상 지원해 드립니다.



“

이야기할머니를 접하며 아이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복을 곱게 입고 오시는 백발 머리 할머니를 제일 좋아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야기할머니를 보시고는 "와~정말 할머니가 오시네?"라고 하시고 좋아하세요!! 이제 저희 유치원의 자랑도 이야기 할머니랍니다! 전북 완주군 무지개재능유치원 ”

“

우리 아이들은 이야기할머니 시간을 많이 기다립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까? 궁금해 하고 이야기 할머니 오실시간이라고 하면 모두들 놀이활동을 멈추고 정리정돈하며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할머니를 맞이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농어촌지역으로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절 등 이야기할머니를 통해서 많이 익혀 주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꼭 이야기 할머니를 파견해 주세요."

전남 보성군 꼬마숲어린이집 ”



### 2 도서관, 박물관, 지역아동센터 등

**활동 횟수** 주 1회 (2025년 3월~12월, 34주)  
**활동 시간** 20분  
 \* 고정된 시간과 관람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초등 늘봄(돌봄)학교

**활동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활동 횟수** 주 1회 (2025년 3월~12월, 34주)  
**활동 시간** 40분 (이야기할머니 활동 20분 + 후속 활동 20분)  
 \* 후속활동 교재(이야기더하기)를 기관으로 전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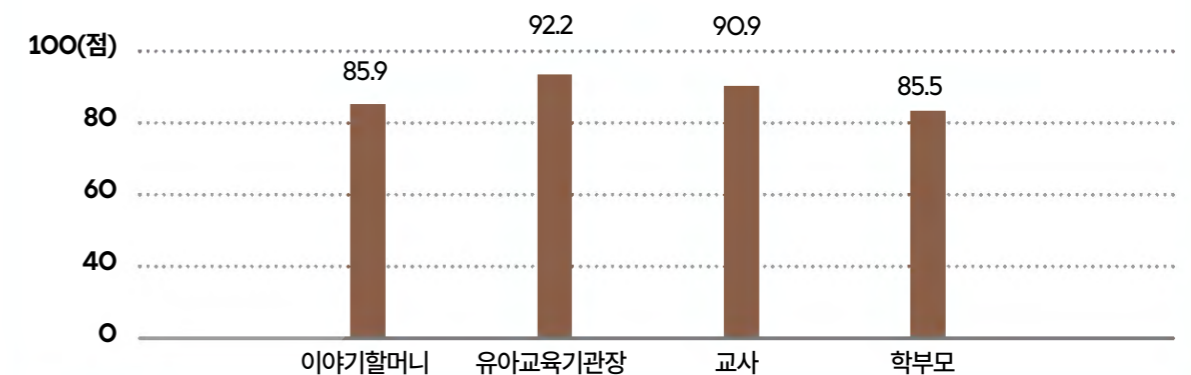


이야기더하기 교재



### 이야기할머니 만족도 조사

\*2023 이야기할머니사업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 감동과 교훈이 가득한 이야기

이야기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크게 '우리 옛이야기'와 '선현미담'으로 나뉩니다.

이야기할머니 사업단은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64만여 점의 기록유산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발굴하고, 오늘날의 시각에 맞추어 새롭게 개작합니다. 아이들은 선현미담을 들으면서 선조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교훈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옛 이야기를 들으며 표현능력과 인지능력, 상상력을 함께 키워나갑니다.



## 우리 옛이야기

“ 이런, 너무 욕심을 부려 물을 많이 마셨나 보군. 젊어지다 못해 아주 갓난아기가 되고 말았어! ”

**젊어지는 샘물** 주제: 과유불급

"여러분은 젊어지는 샘물을 발견하면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나요?"  
 수아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야기할머니요!"  
 "와~ 정말 고마워요."  
 그러자 이번에는 라울이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한다.  
 "손흥민 선수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손흥민 선수가 샘물먹고 더 젊어져서 오랫동안 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15기 송준현 할머니



그림작가 장여희



그림작가 김옥재

## 선현미담

“ 양충의는 왼쪽 주먹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한순간도 펴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 씻고, 잠을 자고, 공부할 때도 왼쪽 주먹은 꼭 쥐고 있었지요. ”

**주먹을 펴지 않은 선비 양충의** 주제: 노력

"할머니, 그럼 양충의는 화장실 갈 때도 주먹을 쥐고 가나요?"  
 "그렇지요."  
 "그럼, 궁둥이는 어떻게 닦아요?"  
 "하하하하"

14기 박정순 할머니

## 이야기할머니가 전해준 그림엽서

이야기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 소통하고, 할머니를 추억하는 시간! 이야기할머니가 예쁜 엽서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갈거예요.

- 1 이야기할머니 활동 마무리단계에서 이야기할머니가 엽서를 나누어줘요.
- 2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나누고
- 3 그림엽서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요.

매년 9월, 이야기할머니사업본부는 그림엽서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중 가장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엽서에 그림으로 표현해 보아요.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을 확인해보세요!  
contest.storymam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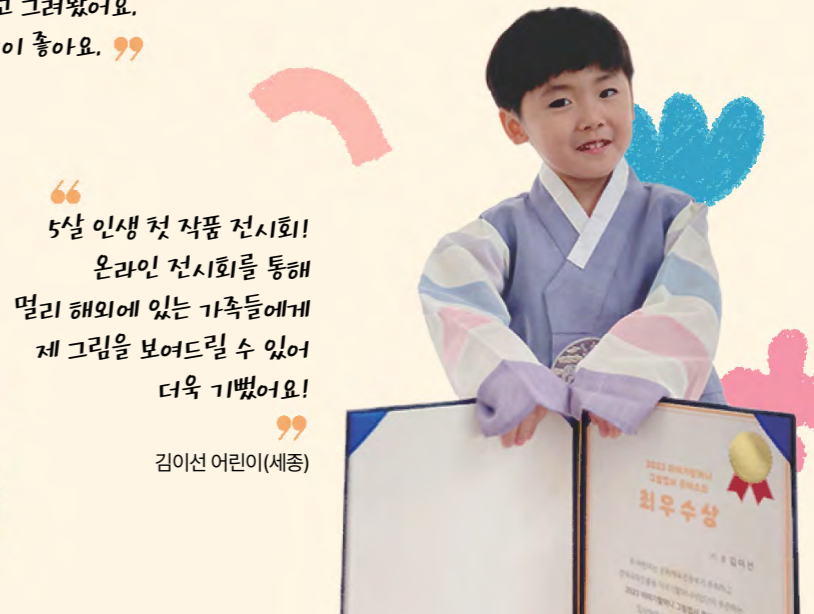
대상 <송아지와 바꾼 무> 강다연



최우수상 <앗 뜨거워 호랑이> 김이선



“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그려봤어요. 상을 받아 정말 기분이 좋아요. ”  
강다연 어린이(경기)



“ 5살 인생 첫 작품 전시회!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멀리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제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어 더욱 기뻐요! ”  
김이선 어린이(세종)



이야기할머니, 하루를 시작하다

"안녕하세요 이야기할머니 백동자입니다. 이야기할머니의 하루를 오늘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아침식사

저는 이야기 들려줄 것을 보면서 식사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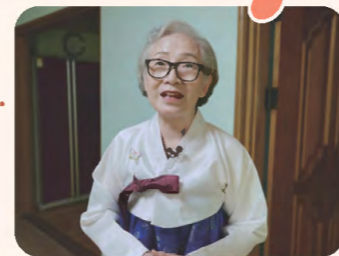


이야기할머니 하루를 마무리하다

"지금까지 이야기할머니의 하루였습니다. 공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의 하루

구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동자(77기) 이야기할머니의 하루를 따라가 보아요



9:30am 이야기를 들려주러 가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한복을 항상 입습니다."



02:00pm 공연을 연습하러 가다

"이야기할머니 전국 순회 공연을 연습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책 읽기를 좋아하는 왕자 세종대왕> 이에요.



10:00am 이야기 시작

"임금님이 된 왕자는 왜 한글을 만들었나요?"

1:30 pm 활동일지를 작성하다



"활동이 끝나면 아이들의 반응, 그날의 소감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반짝 반짝 빛나는 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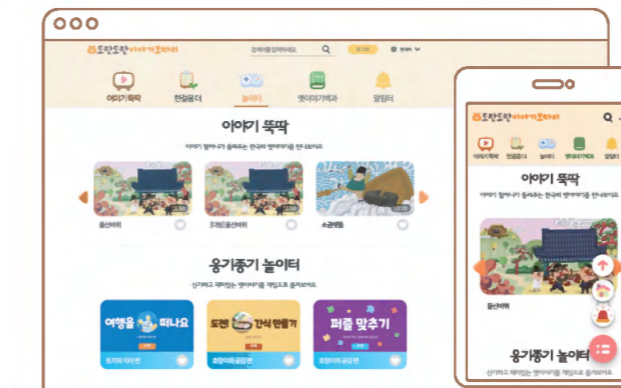
이야기할머니를 무대에서 만날 수 있어요!



K-STORY 전국 순회공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전국 주요 4개 도시에서 총 10회 공연 (2023년), 경연을 통해 선발된 16인의 이야기할머니들이 펼치는 융복합 공연이다. 4개의 전통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해 국악, 뮤지컬, 마술, 라이브밴드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인다. 이야기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해진 무대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 간 즐기며 소통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이야기할머니를 만나요!



kstory.storymama.kr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옛이야기 구연 영상, 사운드 북(한국어/영어), 활동지, 게임 등 한국의 전통이야기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플랫폼 국내 어린이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플랫폼을 통해 K-Story와 관련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언론이 주목하는 이야기할머니

## #1.

### 이야기할머니 찾은 유인촌 "15년전 사업 시작, 성장해 보람"

김미경 기자 2024-04-08

8일 활동 현장 방문, 발전 방향 논의  
2009년 장관 재직시절 30명으로 출발  
미래세대 전통전승, 세대 간 소통 증진  
"사업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



### 2024년 04월 08일 《이데일리》

유인촌 장관은 "이 사업은 아름다운 전통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도우며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

### 13년차 이야기할머니 "한복입으니 '대비마마'라는 아이들... 내 비타민이죠"

김선영 기자 2024-05-23

■ 국학진흥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취임희씨  
"손주같은 학생들 보며 큰 보람"  
그림·촬영 등 가족 동원해 준비  
유아교육기관서 옛이야기 수업  
3200여명이 8300곳서 활동중



### 2024년 05월 23일 《문화일보》

"처음에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던 아이들이 내가 한복을 입자 '대비마마, 어서 오세요' 하며 맞는 걸 보며 보람을 느꼈다. 아이들은 내 삶의 비타민 같은 존재로, 수업하고 오면 한 주 내내 기분이 좋다"

## #3.

### 2023년 06월 20일 MBC <생방송 오늘아침> 매주 유치원을 찾는 '이야기 할머니'

5~6살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 눈에는 보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픈 걸 떠나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체만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최진숙 이야기할머니 (12기, 용인)



# My memories of

## 이야기할머니들의 활동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늘이 1학기 마지막 이야기시간이라 방학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라고 인사를 했더니 한 아이가 나와서 목을 끌어 안고 꼭 안아주었어요. 부족한 것이 많았던 한 학기의 시간이었지만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 김영실 이야기할머니 (15기, 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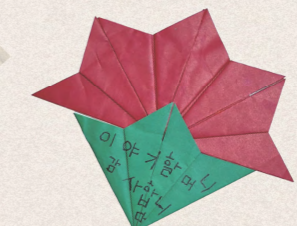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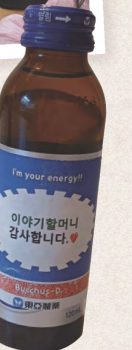
유이순(13기, 평택)

우리 아이들이 한 명 빼고 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임에도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과 감정 그리고 사랑이 통하는 우리들입니다. 어느 날 '이야기할머니'라는 말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혹 말이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며 사랑 표현을 했던 한국 할머니를 기억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 김영실 이야기할머니 (15기, 청주)



유옥균(12기, 서울)



김야물(14기, 서울)



# Storymama